



미셸 푸코의 계보학 시리즈는 두가지 점에서

놀랍다. 우선 '신체'와 '권력'의 근대적 양상을 파헤쳐 풍부한 실증적 사례들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또 푸코는 신체와 권력의 영향관계를 통해 근대사회와 학문, 주체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세웠다. 푸코의 책들은 신체를 특별히 조작함으로써 근대사회가 성립했다는 전제 아래, 인간이 자신의 신체적 이항대립들, 예를 들면 게으름과 부지런함, 병듦과 건강함, 성욕과 금욕을 어떻게 구분하고 내면화 했는지 잘 알려준다.

신체를 통제함으로써 성립한 근대과학

《광기의 역사》(김부용, 인간사랑)에서 다루지는 신체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 책은 고전주의 시대에 서구 사회가 광인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추적한다. 나환자가 넘쳐난 17세기부터 치안당국은 빈민과 불량자들을 대규모로 격리하기 시작했다. 이는 그 전세기까지만 해도 광기가 비범한 것으로, 심지어 피안을 엿보는 기호로 여겨졌던 점을 감안한다면 큰 변화다.

이 책의 결론은 '이성의 성립'이다. 고전주의 시대 합리주의자들이 '광기'라는 타자를 내부로부터 몰아냄으로써 '이성'의 사회적 덕목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정신에 대한 근대과학의 기원을 탐색한다.

《임상의학의 탄생》(홍성민, 인간사랑)에서 푸코는 의학 지식의 오늘날의 합리성을 갖추기 이전의 상태에 주목한다. 예를 들면 두통이 뇌를 둘러싼 외피의 염증 때문에 발생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의학 단계에 있었던 의사들이 이 현상을 어떻게 관찰하고 적절하게 기술하기 시

작했는지 그 '방법'과 '방식'에 대해 탐구한다.

19세기 의사들이 구사했던 담론의 체계는 '공간화'와 '언어화'로 집약된다.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것을 질병의 배치로 언어화하는 작업을 통해 의학적 시선은 과학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인간 신체는 그 담론 체계 속으로 철저히 편입됐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근대의학이 신체에 대한 경험적 실증학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감시와 처벌》(오성근, 나남출판)에서 푸코는 18세기 후반, 감옥 제도가 생겨나고 그것이 일반화되면서 규율적인 사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주목한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이 때부터 인간의 신체가 '관리'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계몽 개혁가들이 고안한 체제인 감옥은 범죄자의 도덕적 개과전신을 목적으로 삼았다. 고문이 폐지되는 대신에 죄질을 형량으로 환원해 그것에 합당한 노동을 부과했다. 또 수많은 죄수들을 통제하기 위해 규율도 만들었다. '공간적 배분의 기술'에 의해 어떤 이에겐 '각방'이 주어졌고, 인쇄·조판·염색 등 차별적으로 업무가 나눠졌다. 글을 쓸 때의 손 자세, 원자재를 나르는 요령, 음식 먹는 순서 등 세세한 행위까지 엄격하게 통제되면서 수감자의 신체는 감옥이라는 체제에 맞게 유순하게 길들여졌다.

문제는 감옥의 체제가 학교, 군대, 공장, 병원 등 사회전반으로 확산됐다는 데 있다. 푸코는 감옥에서 비롯된 이 규율체제가 노동자 계급을 통제하기 위한 근대 부르주아 계급의 정치적 실천

신체의 통제로 탄생한 '근대적 주체'

미셸 푸코의 계보학적 저작을 중심으로

푸코는 감옥과 병원의 성립과정을 고고학적으로 고찰해, 인간 신체에 가해진 권력의 양상을 드러낸다. 그에 따르면 권력은 결코 억압적이지 않다. 그것은 '교화'와 '치료'의

이름으로 가해졌고 갖가지 통제기법들을 창안했다. 이른바 인간과학이라 일컫는 학문들은 신체를 통치하는 방법론들의 축적이라는 것이 푸코의 관점이다. 그 규율들이 사회전체에 퍼져 견고한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이 근대사회라고 주장한다.

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한다.

신체-권력에서 규율을 내면화하는 주체로

《성의 역사(전3권)》(이규현 외, 나남출판)에 오면 신체와 권력의 관계는 복잡미묘해진다. 이 책은 성에 관한 담론이 그 출발선부터 본질적으로 부르주아의 자기 확인과 그들 자신의 주도권을 확립하기 위해 활용한 '자기의 기술체계'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푸코는, 고전주의 시대에 성에 대한 억압이 시작되고 그것이 자본주의 발전과 일치한다는 기존의 통설을 뒤집고, 부르주아 사회가 기독교의 고해성사, 성의학, 우생학, 정신분석학 등 다양한 담론을 부추겨 성욕을 생산하고 그것을 기반 삼아 부르주아만의 특수한 계급적 육체를 구성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감시와 처벌》에서 볼 수 있었던 권력이 피지배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보이지 않는' 통제와 지배의 형식이라면, 《성의 역사》에서는 성이 개인의 진리에 대한 일반적 탐구의 주된 주제가 됨으로써, 권력은 일종의 자기확인 수단, 즉 주체성의 발현으로 나타난다.

'감옥'에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근대사회와 유순하게 길들여지는 근대적 주체의 모습을 봤다면, '성'의 영역으로 옮겨와서는 통제의 그물망에 포섭되는 측면과는 별개로, 자기 내부의 윤리적 문제설정에 따라 행동하고 배려함으로써, 사회의 세력관계 속에 자신을 적절히 위치시킬 줄 아는 '근대적 주체'의 또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 강성민 기자